

# 박물관 문화

## 전시 소식 I 식물예찬

## 전시 소식 II 조선시대 帶대

## 인공지능(AI) 휴먼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상설전》

## 보존처리 소식

2021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보존처리 사업  
보존과학으로 다시 만난 백자철화 매죽문 시명 호 白磁鐵畫梅竹文詩銘壺

## 교육 소식

2021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2021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 기증소식

정연수 · 김덕신 · 김동철 기증품



## 식물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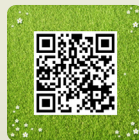
오랫동안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의미로 자리해 온 꽃과 나무, 풀 같은 식물들은 생태학적 특성과 아름다움으로 생활에서 유익함을 제공해왔다. 그 과정에서 식물은 문학과 철학, 미학적으로 다양한 사유의 관점을 투영하는 은유와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전시에서는 조선에서 현대에 이르는 작품 총 250여점을 5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는 식물에 대한 동시대적 해석을, 조선시대 미술품에서는 식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식물예찬》특별전을 구성하는 5가지 소주제는 ‘식물, 관념의 투영’, ‘식물장식과 도안’, ‘길상(吉祥)과 염원’, ‘현대미술과 식물’, ‘식물 아카이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식물’을 주제로 작업한 현대작가들을 초청하였다. ‘현대미술과 식물’에서는 김보희 <Towards>, 박일순 <Green>, 정찬부 <정원에서 피어나다>를, ‘식물 아카이브’에서는 김수정 <생명>, 나현 <난지도 15-25>, 엄유정 <plant>를 전시하여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표현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의 <동리가색도(東麗佳色圖)>, 김수철(金秀哲 ?-1862 이후)의 <하화도(荷花圖)>, 신명연(申命衍 1808-1886)의 <애춘화첩(爰春畫帖)>과 함께 문인들의 소품을 통해서는 선비들이 가졌던 식물에 대한 관념을, 중요민속자료 63호인 <녹원삼>과 자수품, 금박판 등에서는 다양한 장식과 도안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부귀와 장수, 부부화합을 상징하는 꽃과 나무를 장식한 공예품과 회화에서는 현세의 행복을 추구했던 인간의 염원도 읽을 수 있다.

11월 30일에 종료된 《식물예찬》특별전은 박물관 홈페이지의 VR전시관에서 다시 관람할 수 있다.

※ 이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후원으로 준비되었다.



특별전 VR투어  
Special Exhibition VR Tour

START >>

## 조선시대 띠대

대띠는 허리에 두르는 끈으로, 우리말로로는 띠 또는 허리띠라고 한다. 처음에는 옷감이나 가죽을 길게 잘라 허리에 묶는 단순한 형태의 허리띠를 의복을 고정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사회계층이 분화되면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목적이 추가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대는 소재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직물로 만든 포백대布帛帶, 비단실을 엮어 짠 조대絛帶, 가죽이나 직물로 만든 허리띠 위에 장식품을 달아 만든 과대鈔帶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와 용도, 사용한 재료에 따라 명칭이 세분되었다. 조선시대의 대는 대부분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관복官服에 두르는 과대가 대표적인데 각대角帶라고도 하며 소재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편복便服에는 광다회廣多繪나 세조대細絛帶 같은 조대를 띠었으며, 군복에는 요대腰帶와 전대戰帶를 하였다. 저고리의 여밈이 고름으로 바뀌면서 여성이 사용한 대는 원삼이나 활옷 같은 예복에 두르는 대대大帶와 치마를 걸어 올리는데 사용한 허리띠로 압축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품계에 따라 띠꾸미개鈔板의 재료를 달리하여 신분을 나타냈던 다양한 각대와 함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에 착용했던 대대, 군복에 매는 요대와 전대까지 조선시대 관복에 착용했던 다양한 대를 선보인다. 더불어 편복에 둘러 옷매무새를 완성했던 조대와 여성 예복에 들렀던 대대,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길상문양을 수놓은 돌띠까지 허리에 들렀던 각종 허리띠를 확인할 수 있다.



각대角帶  
조선 19세기



세조대細絛帶  
조선 19세기



## 인공지능(AI) 휴먼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상설전》

박물관은 팬데믹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고 대면의 전시 설명이 불가능해지면서 이화梨花의 명품들이라도 우선 가깝게 만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상설전》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AI 휴먼 도슨트”를 도입했다.

《온라인 상설전》을 방문한 관람객은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 156점을 고화질 이미지와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탐색하기”와 “한눈에 보기” 장치를 통해 소장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탐색하기”에는 하위의 카테고리 ‘장르별’ 탐색과 ‘문양·소재별’ 탐색이 있는데, 장르별 탐색에서는 156점을 서화書畵, 현대미술,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복식으로 구분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문양·소재별 탐색에서는 산수·식물, 인물, 동물, 문자, 물상, 기하, 문양 없는 유물로 분류하여 탐색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에서는 공개된 156점 유물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

이 중 <백자철화 포도문 항아리>,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와 같은 지정문화재 21점은 “AI 휴먼(인공지능 아바타) 도슨트”가 안내한다. AI 휴먼 도슨트는 박물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박은영 씨(분교 미술사학과 석사 재학, 전 KBS 아나운서)를 모델로 구현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박은영 홍보대사의 목소리, 동작, 표정 등을 학습하여 휴먼 도슨트처럼 한국어와 영어로 박물관의 유물을 설명한다. 이렇게 구현된 “AI 휴먼 도슨트”는 박은영 홍보대사의 안내 멘트를 단순히 녹화하는 방식이 아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온·오프라인 도슨트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람객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최첨단 딥러닝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제 인물과 동일한 AI 휴먼을 구현하고 이를 박물관에 도입한 서비스 중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물관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박물관만의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화梨花답게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 박물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상설전》바로가기  
<https://masterpieces.ewha.ac.kr>



AI 휴먼 도슨트가 설명하는  
 <백자철화 포도문 항아리>  
 (국보 제107호)

# 보존과학으로 다시 만난

## 백자철화 매죽문 시명 호 白磁鐵畫梅竹文詩銘壺

함철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학예연구사

백자철화 매죽문 시명 호 白磁鐵畫梅竹文詩銘壺는 짧게 벌어진 구연과 풍만한 어깨에서 아래로 좁아지는 형태의 향아리이다.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대칭되게 그려 넣고, 조선 중기 문인인 이정구 月沙 李廷龜(1564-1635)의 오언절구 “취서병면 醉書瓶面”의 구절인 “수구능탄토 守口能呑吐, 수시입탁칭 隨時任濁淸, 중허족용물 中虛足容物, 질백견천성 質白見天成”을 2구씩 필사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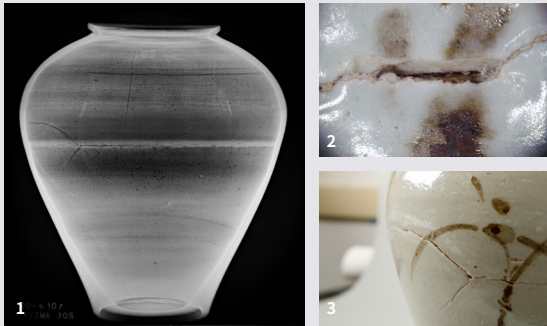
유물의 보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파괴(사진 촬영, UV 조사, X-ray 촬영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맨눈으로 볼 수 있듯이 구연부, 동체부분에 이르기까지 복원 재료 노화로 인한 황변 현상이 관찰되며 자외선 촬영(Broncolor minicom 160, UV attachment(λ365nm)) 결과, 형광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복원 및 색맞춤을 한 흔적이다.

방사선 촬영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백자 달항아리처럼 위와 아래의 몸통을 따로 만들어 붙여接觸法 만들어졌으나 이 부분이 취약하여 균열이 진행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휴대용X-선형광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Olympus, DELTA, USA)로 복원재를 확인한 결과, 복원부의 주성분은 칼슘(Ca), 티타늄(Ti), 아연(Zn)이며 미량의 규소(Si), 철(Fe), 납(Pb) 등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색맞춤 부분은 티타늄 계열의 산화지당(TiO2)이나 아연 계열의 아연백(ZnO)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격적으로 복원재 제거와 세척 과정을 실시한 결과, 결손 부위 및 독립적으로 깨진 편을 접합한 흔적은 보이지 않

나 넓은 범위로 색맞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거 복원시 균열부 가장자리에 연마 흔적이 관찰되었다. 결정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유약이 말린 것으로 보아 제조 당시 결함으로 인한 파손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보존처리 방안을 세우고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복원을 실시하였다. 약 16개월 동안 보존처리를 마친 백자철화 매죽문 시명 호는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1 X-Ray 사진 2 유약 말림 3 가장자리 스크래치 및 단차



보존처리 전



자외선 촬영



세척 후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사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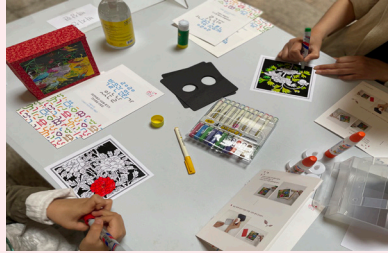
1 이 항아리에는 문집 원문의 첫 구절 가운데 ‘탄(呑)’이 ‘천(天)’으로 쓰여있다.

## 2021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선정 및 진행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2021년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대박물관 전시와 함께하는 소장품 이야기”와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추어 진행된 가족체험프로그램 “나만의 소장품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가족 단위 및 다양한 연령대의 총 147명의 참여자들이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이대박물관 전시와 함께하는 소장품이야기



나만의 소장품 만들기

## 2021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사업 선정 및 진행

박물관은 한국박물관협회, KB국민은행 주관 2021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공모 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박물관에서 만나는 역사·문화·직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역사·문화·직업 체험〉은 조선시대 공예문화와 길상문예 대해 알아보는 초·중·고등학생 체험교육프로그램 “조선시대 공예체험: 길상 드림캐처 만들기”와 복식 유물과 전시라는 주제로 박물관 속 다양한 업무를 알아보는 중·고등학생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직업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0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박물관 직업체험교육



조선시대 공예체험: 길상 드림캐처 만들기

## 기증소식

박물관은 故 정연수(교육학과 61년졸) 등문과 부군인신 故 석전육영재단 이인혁 이사장의 애장품 26건 26점을 기증 받았다. 장녀 이현지 석전육영재단 이사장은 “부모님 생전에 다섯 딸 중 세 명(이현지(교육학과), 이현희(생활미술과), 이현승(장식미술과))이 이화 졸업생이라 이화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였다. 아버지께서 교육학과 동창회장을 역임했던 어머니를 추모하는 뜻에서 교육학과에 ‘정연수장학금’을 조성하고 후원하고 계신 것을 이어받아 자녀들도 이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던 어머니의 애장품을 모교에 남기고 싶었다”고 기증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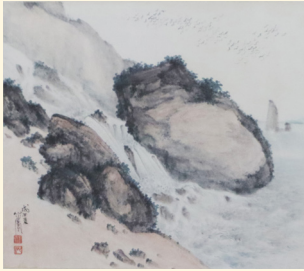
기증품에는 근대 이후 일본과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아 도안과 배색 방식, 수법 등이 현대적으로 변화된 <자수 쌍학 흥배>, <자수 모란도 병풍>과 <자수 화조도 병풍> 등 근현대 자수 6점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근현대 미술품으로는 ‘제산수題山水’가 제화題書되어있는 변관식卍寬植(1899-1976)의 <춘경산수화>, <추경산수화>, 노수현盧壽鉉(1899-1978)이 작고했던 해에 그린 <하경>, <응두암>, 본교 생활미술과 백태호白泰昊(1925-2009)교수의 염색예술작품, 한국청자연구소를 설립한 위군섭韋君燮(1911-1990) 도예작품 등 12점이 있다. 또한 『삼연집三淵集』에 수록되어 있는 「화강백전花江栢田」의 내용이 제시된 산수화첩의 일부 및 개항기 장례원경, 흥문관 대학사, 의정부 참정 등을 지냈으며 문재에 뛰어난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하정荷亭 김영수金永壽(1829-1899)가 쓴 서예병풍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예가로, 창덕궁연경당과 강릉 선교장 활래정의 주연을 휘호한 농천農泉 이병희李丙熙 행서 등의 서예작품 6점이 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현지 이사장은 시어머니 故 김혜경 본교 섬유예술학과 교수로부터 받은 유물과 개인 컬렉션 10여점에 대한 기증의사와 함께 한국미술을 알리고 연구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본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장학금 후원의사도 밝혔다.

### <정연수(교육학과 61년 졸업) 기증>



**자수 모란도**  
각 124.2×33.2



**노수현 作 <하경(夏景)>**  
33.3×40.5, 종이에 수묵담채, 1978



**위군섭 作 <백자청화 운학문 발과 팔각병>**  
높이 14.5, 22.3cm, 20세기



**변관식 作 <춘경산수도>, <추경산수도>**  
각 114×30.7cm, 종이에 수묵담채



**하정荷亭 김영수 서예 10폭 병풍**  
각 147.8×26.5, 종이에 먹

### <김덕신(사회학과 66년 졸업) 기증>

한편 본교 사회학과 김덕신(66년 졸업) 등문은 웅기 컬렉션 85점 기증에 이어 백자 항아리 1점을 추가 기증했다. 백토 위에 쌍어문雙魚文과 화문花文을 청화 안료로 그려 넣은 이 항아리는 황해도 해주가마에서 제작된 귀중한 유물이다.

또한 한국언론연구회 회장인 김동철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30-40년 이전에 사용하신 카메라와 부속기기 3건 9점을 기증했다.

### <김동철(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명예교수) 기증>



**Rolleicord V**  
전체높이 15.5cm, 1957-59년



**<백자청화 쌍어문 항아리>**  
높이 54cm, 19-20세기 초